

2017 년 7 월 23 일 “찾아오신 예수님(34)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14:16-17, 26)**<도입>**

책이든지, 강의든지 부분적인 내용에 쏠리면 전체 주제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면 부분이 전체인양 되어 핵심이나 본질을 오히려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령님은 매우 크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와 역사의 완성의 주이신데 개인에게 주신 방언, 은사 주신분으로, 위험을 피하고 이익 보게 하신 분으로 이해하는데 머문다면 성경의 성령님 소개를 떠나 자기 중심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님에 대하여 균형있는 이해를 하려면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간파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수정/확장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4-16 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1]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라는 단어가 14:26, 15:26, 16:7 에 4 회 나옵니다.

보혜사 = 변호자 advocate(법정에서), 위로자 comforter, 돕는 자 helper, 중재자 intercessor, 조언자 counsellor 라는 여러 뜻.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 ‘보존하시며 은혜주시는 스승’

더 나아가 수식어 사용을 보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또 다른”(알로스) → 예수님과 다른(헤테로스) 본질이라는 뜻이 아니고 ‘같은 종류 안에서 또 하나’라는 뜻.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1) 두분 다 아버지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 받는다’(요.복.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2) ‘거룩하다’고 일컬어 짐(6:69/14:26)

(3) 두분 다 위대한 교사 - 예수님(13:13, 14); 성령님(14:26)

그리스도 → 자신/아버지에 대해(15:26-27); 성령님 → 영화롭게 된 아들에 대해 알려주심(16:13-14)

(4)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다(1:11/14:17)

(5) 둘 다 세상에 죄를 확증한다(다음 시간)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까지 활약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 아래 동일한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두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18-20 절 →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고’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란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입니다. 성령 오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새로운 차원에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17 절)

예수님 –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심.

15:26 –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 예수님이 진리(14:6).

16:13 – 진리의 영이 오시면 ... 모든 진리 가운데로(예수께로) 인도하심.

성령이 진리의 영 →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이 진리에 끌리도록 돕고 설득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어받아 수행하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사로서 성령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14:26)

(1) **가르치심**: 제자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하여(교회 관련) 성령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생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많은 상황들과 외부, 내부에서 오는 숭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당신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7 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그리스) 과부들에게 식량 구제가 잘 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담당할 7 명의 봉사자들을 뽑았는데, 모두 헬라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대인 출신들이 반대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결과였습니다.

(2) 생각하게 하심: 과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단순한 사실 기억이 아니라 깊게 자각하여 깨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 2:13-21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심.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우쳤습니다.

[3] 제자들로부터 우리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본문의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는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안 만났으므로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로 참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읽고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수준에는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심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얼마나 찬미하는가?’ ‘나는 그분과 얼마나 대화하는가?’ ‘나는 성령님께 진정으로 나를 비우며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런 질문은 내가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증의 질문이 됩니다.

<맺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깨어나 그분을 찾고자 하는 인격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깊이 간직하시고 더욱 그 성령님과 복된 동행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말씀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본질을 지닌 두분으로서 두분 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일을 행하실 때, 나와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발견한 그분들의 주요 사역을 말씀해 보세요.
3.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거나 확장/수정된 것이 있습니까?